소비침체 지갑 안열어…백화점도 대형마트도 '죽을맛'

광주·전남 대형 소매점 판매액 3개월 연속 하락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년비 0.3·3.0% 소폭 상승

광주·전남의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3개월 연속 떨어졌다. 고물가와 향후 불투명한 경기 전망은 시도민이 지갑을 좀처럼 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광주·전남지역의 생산은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6월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4.0으로 전년 동월(97.8)과 전월(102.7)에 견줘 각각 3.8%, 8.5% 하락했다. 특히 대형마트보다는 백화점 판매액지수의 하락폭이 더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 대형소매점에서는 백화점 판매액지수가 1년전보다 5.3% 줄었고,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2.0% 감소했다.

이는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지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지역민들이 사치품 위주의 백화점보다는 식재료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를 더 많이 이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도 전년 동월(91.9)보다 6.1% 감소한 86.2를 기록했다. 전남 대형소매점에서는 가전제품(33%), 오락·취미·경기용품(1.8%) 등이 증가했지만, 의복(-13.9%), 신발·가방(-7.8%), 기타상품(-7.1%), 화장품(-5.9%), 음식료품(-5.7%) 등 대부분 상품군에서 소비가 감소했다.

광주시 광공업 생산지수는 지난달 기준 118.2로 전년 동월(117.9) 대비 0.3%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통신(-23.6%)의 감소세가 지속됐고, 기계장비(9.2%), 자동차(-6.7%) 등이 줄어든 반면, 금속가공(24.6%), 담배(21.9%), 고무·플라스틱(9.0%) 등이 늘어 전체 생산 지표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광주시 광공업은 출하와 재고 부문 모두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출하는 1차 금속이 38.4% 증가하면서, 전년에 견줘 3.1% 늘었고, 재고는 전자·통신(160.6%) 상승에 힘입어 11.8% 상승했다.

지난달 전남 역시 생산은 늘었다. 전남 광공업 생산지수는 107.5로 전년 동월(104.4)에 견줘 3.0%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49.5%), 1차금속(-2.7%), 비금속광물(-12.8%)가 감소했지만, 기타운송장비(157.3%), 기계·장비수리(15.7%), 화학제품(1.9%) 등이 늘었다.

전남의 재고 및 출하 역시 모두 증가했다. 출하는 기타운송장비(161.5%) 등이 늘어 5.7% 증가했고, 재고는 금속가공(38.8%)이 0.5% 증가를 견인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갤럭시 신제품 체험해 보세요" 삼성전자는 오는 8월 18일까지 강원도 양양 서피비치에서 갤럭시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 서핑'을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방문객들은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갤럭시 링' 웨어러블 제품과 '갤럭시 Z 폴드6', 'Z 플립6'의 AI 카메라도 체험할 수 있다. 또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착용하고 운동을 할 경우 갤럭시 AI의 운동 코칭도 받아볼 수 있다. 사진은 강원 양양 서피비치에 마련된 '갤럭시 스튜디오 서핑' 전경. 〈삼성전자 제공〉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광주·전남 기업들 뒷걸음

중흥 1단계·우미 2단계 하락
제일·금호 수주액 크게 떨어져

광주·전남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들의 실적도 전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 1위를 차지한 중흥토건㈜(2조7709억원)의 전국 순위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16위를 기록했다. 지역 2위 우미건설(1조7542억원)도 전국 순위는 지난해 25위에서 올해 27위로 떨어졌다. 지역 4위 업체인 대광건영(45위→49위)과 5위 업체인 디에스종합건설㈜(63위→67위)도 전국 순위가 낮아졌다.

지역 6·7위를 차지한 보광종합건설㈜(4491억원)과 ㈜우미개발(4063억원)은 순위가 급락했다. 보광종합건설은 56위에서 74위로, 우미개발은 57위에서 78위까지 내려앉았다.

지역 3위인 라인건설(1조1102억원)은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44위, ㈜유탑건설이 97위로 새롭게 100위권 내에 진입한 것을 제외하면 지역 상위 업체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전남은 상위 10개 기업들의 전국 순위는 소폭 상승했지만, 시공능력평가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2위 기업인 제일건설㈜(2조8261억원)과 금호건설㈜(2조2876억원)이 각각 2단계, 1단계씩 오른 전국 15위와 20위를 차지했다. 3위 ㈜라인건설(9337억원)은 8순위나 떨어진 전국 48위, 4위 중흥건설㈜(7509억원) 역시 두 계단 내려앉은 5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금광기업㈜(98→87)과 ㈜광신종합건설(103→94)도 올라섰다. 그러나 금호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87억원 감소하고 라인건설(2524억원), 중흥건설(819억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100위 안에 포함됐던 전남지역 건설회사인 한국건설과 남화토건은 100위 밖으로 벗어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지형건설·도양건설 광주·전남 1위

올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지형건설과 도양건설이 각각 광주, 전남 1위에 올랐다.

지난 3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와 전남도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4년 시공능력평가액 결과에서 지형건설은 1665억원, 도양건설은 1690억원을 기록했다.

광주 전문건설업체 중 2위는 삼지토건㈜(1217억원)이 차지했고 뒤이어 대원산업개발(887억원), 대선사업개발(821억원), 안산조경(629억원)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지역 상위 1~4위 업체는 모두 철근콘크리트 회사였다.

전남은 다스코㈜가 1063억원으로 2위에 올랐고, 정품건설산업㈜(974억원), 진응건설㈜(965억원), 대아산업㈜(866억원)이 상위 5위 안에 포함됐다. 전남은 1위인 도양건설을 비롯해 3, 5위 업체가 지반조성포장 기업이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을 산출해 매년 7월 말 공시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그린알로에 '그린당 바나바 플러스' 출시

혈당 상승 억제 건강기능식품

㈜그린알로에는 지난 31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그린당 바나바 플러스'〈사진〉를 출시했다.

그린당 바나바 플러스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바나바잎 추출물과 건조효모 내 멀티비타민, 나이아신과 아연, 비타민B 등 미네랄 10종이 주원료다.

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여주 추추물을 비롯해 직접 엄선한 구아바잎, 피니톨, 호로파종자추출물, L-카르니틴, 등 부원료들도 첨가했다.

그린당 바나바 플러스는 자연 부형제를 함유해 누구나 안전하게 섭취 가능하도록 만들어 졌다. 특히 제품 성분 중 중국산 원료는 단 1%도 포함되지 않았다.

송은 ㈜그린알로에 대표는 "바나바잎에서 추출한 코로솔산이 1일 섭취량 기준 130㎎으로 식약처에서 인증 받은 1일 섭취 최대 함량을 함유했다"며 "꼼꼼하게 엄선한 자연유래성분들을 복합적으로 함유해 식후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리미엄 혈당케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소 식후 혈당상승 억제가 필요하거나, 과도한 탄수화물과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분, 폭식 등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한 분들에게 섭생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효성첨단소재 멸종위기 꿀벌 보호 나섰다

서천 이어 울주에 밀원생태정원

HS효성의 주력 계열사인 효성첨단소재가 꿀벌 보호에 나섰다. 효성첨단소재는 지난달 30일 울산시 울주군, 국립생태원과 함께 '멸종위기 밀원생태학습정원'을 조성했다. 〈사진〉

밀원은 꿀벌의 먹이가 되는 꽃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식물로, 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내에 마련된 밀원생태학습정원은 기후변화와 농약 사용으로 개체량이 줄어든 꿀벌을 살리기 위한 마련됐다.

효성첨단소재는 멸종위기종 밀원 정원을 조성해 꿀벌의 먹이를 늘리고, 멸종위기종 보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조성된 정원을 야외 체험학습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생태교육 강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효성첨단소재는 지난해 10월 충남 서천 물버들 생태체험학습센터 내에 멸종위기 식물을 활용한 밀원식물 정원을 조성한 바 있다. 회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추가 밀원생태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효성첨단소재 ESG 관계자는 "밀원생태학습정원 조성이 일회성 생태복원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복원 식물들의 적응과 생존을 추적하고 관리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022년 국립생태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상반기 세수 168조…작년보다 10조 덜 걷혀

법인세 16조원 줄고 소득세 늘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가 160조원대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세수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조9800억원(5.6%) 감소했다. 6월 한 달간 17조5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9000억원(4.7%)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감소 폭이 점차 커지면서 6월에 10조원에 육박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다. 연간 국세수입 예상치(367조3000억원)의 45%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났던 지난해(44.6%)보다는 1.3%포인트(p) 높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은 52.6%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인은 법인세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법인세는 30조7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1000억원(34.4%) 급감했다.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는 소폭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양호한 흐름이다. 소득세 수입은 6월까지 5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2천억원(0.3%) 더 걷혔다.

정부는 7~8월 국세 수입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올해의 세수 결손 규모와 재추계를 발표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5월 기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과 5%p 이상 차이나 조기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기재부는 실국간 협의로 세수 부족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에 청년 많아지려면…"첨단 일자리 필요"

대한상의 "첨단기업 수도권 집중"

지역에 첨단산업 일자리와 정주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청년층의 지역 전입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06~2021년 15년간 20~39세 청년층의 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지난 3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총사업체 중 첨단기업 비중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의 경우 2006년 평균 12.7%에서 2021년 23.8%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9.0%에서 16.1%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첨단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상의는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인구 중 청년층 비중은 2019년부터 50%를 웃돌기 시작해 2023년 51.8%를 기록했다. 전출 청년 중 수도권으로 전입한 비중도 2015년 43.9%에서 2023년 47.0%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상의는 문화적 욕구와 교통 접근성을 만족시키는 양질의 정주 환경과 함께 안정적 소득을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를 갖춰야 청년들의 비수도권 거주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 "자율주행 기술 개발할 때 차 번호 가명처리 필요없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인공지능(AI) 발전 등 시대 상황을 반영해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된 자동차 번호판은 가명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주최한 '자율주행 관련 산업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국민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기 위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AI가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제까지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기기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차 번호판는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나 블러 작업을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관련 산업계에선 수집된 모든 차 번호판을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유연한 법 해석을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70.69 (+32.50)
↓	코스닥	803.15 (-0.63)
↑	금리 (국고채 3년)	3.004 (+0.010)
↓	환율 (USD)	1374.25 (-11.05)